

김현정과 그녀의 둘째 아들 사이에는 많은 따뜻하고 특별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김현정은 자녀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어머니였으며, 특히 둘째 아들과는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의 주요 추억들을 아래에 상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린 시절의 특별한 놀이 시간

김현정은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종종 "우리 둘째 천재"라는 애칭을 사용하며 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김현정은 아들에게 직접 만든 간단한 퍼즐 게임이나 문제를 자주 주곤 했습니다. 이 게임들은 항상 "엄마의 최고 파트너"인 둘째 아들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둘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김현정은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둘째 아들은 엄마의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정은 아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했고, 이때부터 아들은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디지털 기술과의 첫 만남

김현정이 교사로 재직할 당시, 디지털 기술에 대해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컴퓨터를 처음 배우던 시기였고, 어머니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김현정은 아들에게 "우리 슈퍼 히어로 아들"이라고 부르며, 아들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특히, 김현정은 아들과 함께 앉아 컴퓨터 기초를 배우면서, 서로의 역할이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입장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아들이 엄마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둘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으며, 김현정은 아들의 도움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 제주도 가족 여행

김현정과 그녀의 가족들은 종종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에 다녀온 제주도 가족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김현정이 퇴직 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계획한 것으로, 둘째 아들과 함께 한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나눈 대화는 둘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현정은 아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하느님이 함

께하신다"는 말을 통해 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둘은 그날 밤,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앉아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었으며, 이는 둘 사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 함께 요리한 추억

김현정은 요리를 통해 가족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곤 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과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은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김현정은 자주 김치찌개와 잡채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나눴으며, 이러한 요리 시간 동안 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현정은 아들에게 잡채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마음 먹기에 달렸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는 요리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친 그녀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요리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현정은 이 시간을 통해 아들에게 인내와 성취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이러한 추억은 아들에게도 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5. 어려운 시기, 따뜻한 위로

둘째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학업과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을 때 김현정은 아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현정은 아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김현정은 아들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김치찌개를 내놓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김현정은 아들과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며, 아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김현정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아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때의 대화는 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6. 고인의 마지막 순간들

김현정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둘째 아들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자주 떠올리곤 합니다. 사고 직전에, 김현정은 아들에게 "엄마의 최고 파트너"라고 부르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는 아들에게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으로 남아 있으며, 어머니가 항상 자신을 믿고 격려해주던 따뜻한 말들이 그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마지막 순간은 아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가 남긴 사랑과 지혜는 그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가 앞으로의

삶에서 맞이할 도전들을 어머니의 가르침과 함께 이겨내고자 다짐합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김현정과 둘째 아들 사이의 깊은 유대와 사랑을 보여주며, 김현정이 떠난 후에도 아들의 마음 속에 남아 그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정과 둘째 아들(이준호)의 또 다른 추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말 가족 식사

- **장소:** 김현정의 집, 서울시 강남구
- **날짜:** 2023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 **세부 내용:** 김현정은 주말마다 서울 집의 주방에서 김치찌개와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김현정은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자주 김현정 옆에서 재료를 다듬거나 요리를 돕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족 모두가 모여 앉아, 김치찌개와 잡채를 함께 먹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 제주도 가족 여행

- **장소:** 제주도, 제주도
- **날짜:** 2022년 7월 15일 ~ 7월 18일
- **세부 내용:** 김현정과 준호는 2022년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해변인 협재 해수욕장과 한라산 등반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협재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보며 산책을 하고, 한라산 정상에서의 일출을 감상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여행은 두 사람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3. 정원 가꾸기

- **장소:** 김현정의 집, 서울시 강남구
- **날짜:** 2023년 5월 20일
- **세부 내용:** 2023년 5월 20일, 김현정의 서울 집 정원에서 꽃을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현정과 준호는 봄을 맞아 정원의 화단에 다양한 꽃을 심고, 식물들을

배치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김현정이 애정하는 장미와 팬지 꽃을 심었고, 준호는 김현정의 지시에 따라 흙을 고르고 물을 주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4. 공부와 대화

- **장소:** 김현정의 집 서재, 서울시 강남구
- **날짜:** 2023년 4월 12일
- **세부 내용:** 2023년 4월 12일, 김현정의 집 서재에서 준호와 공부와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컴퓨터 공학 관련 문제를 이야기할 때, 김현정은 서재의 책상에 앉아 진지하게 경청하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김현정은 준호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5. 특별한 날의 축하

- **장소:** 김현정의 집, 서울시 강남구
- **날짜:** 2023년 6월 10일
- **세부 내용:** 2023년 6월 10일, 준호의 대학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 김현정은 서울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현정은 직접 만든 파스타와 리소토를 대접하며, 졸업식에서 준호의 성취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함께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준호의 졸업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